

『신여성』誌의 ‘독자투고’문을 통해서 본 ‘여성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 만들어지는 글쓰기, 배제된 글쓰기의 욕망 —

박 지 영*

1. 들어가는 말 — 『신여성』 독자투고란의 중요성
2. 연구 대상의 설정 — 『신여성』 ‘독자투고’란의 양상과 ‘독자투고’의 신빙성
3. 만들어지는 글쓰기 — 『신여성』 독자투고란에 실린 글쓰기 양상
 - 1) 자기표현의 글쓰기 — ‘번민’을 표현하라.
 - 2) 길들여진 ‘여성적 글쓰기’와 저항적 글쓰기의 경계 — ‘사소함’과 ‘은밀함’의 공론화와 신파적 글쓰기
 - 3) ‘배제된’ 문학에의 욕망 — ‘문학소녀’라는 명명법의 허구성
4. 『신여성』의 독자투고란의 의미

*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Post-doc 연구원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지시대 대표적인 여성잡지 『신여성』의 독자투고란 분석을 통해 1920년대 여성들의 글쓰기가 어떠한 식으로 시작되고 실현되는지를 살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1920년대 (글쓰기)'문학'이 여성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분석하는 길이 될 것이다. 잡지 『신여성』은 창간 당시부터 독자투고란을 개설하여 여성들의 글쓰기를 장려하였다. 그 결과 당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글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편집진으로 구성된 『신여성』의 계몽적 편집 방침은 독자 투고란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신여성』의 편집진들은 여성들의 글쓰기를 유도하고 계몽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글쓰기= 센티멘탈한 글쓰기'라는 도식을 만들어 여성들의 글쓰기를 길들인다. 이와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여성들의 글쓰기가 저급한 것이라고 하여 배제하였다. 여성들은 이러한 계도 속에서 잡지의 구미에 맞는 센티멘탈한 글을 쓰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논리에 대한 여성 필자들의 논리적인 반박이 존재하였으며, 독자들의 글 중 센티멘탈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현실비판적인 글쓰기가 존재하여 남성필자들의 판단이 선입견이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논리에 대한 순응과 저항의 논리 속에 1920~30년대 여성의 글쓰기 양식은 형성된다.

핵심어 : 신여성, 독자투고란, 여성의 글쓰기, 자기표현, 센티멘탈한 글쓰기, 배제, 순응, 저항

1. 들어가는 말 — 『신여성』 독자투고란의 중요성

1920년대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여성의 수는 지극히 드물었다. ‘1930년대 현재 한글과 일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1.9%, 한글 또는 일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10.5%에 머’¹⁾문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10년대와 1920년대 초의 여성 독자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교육을 받은 1.9%의 여성이 가진 힘은 대단’했다. 문학의 시대, 1920년대에 여성의 글쓰기는 곧 당대의 이단아 ‘신여성’의 증표였다. 몇 안되는 신여성들의 글은 조선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남성중심주의의 균열은 여성의 책읽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²⁾는 말은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근대 이래 여성들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징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근대매체의 등장과 함께 생성되었다. 특히 근대적 매체들이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마련한 <독자투고>란은 일반 여성 독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이미 최근에 이경하³⁾에 의해 근대 초기의 ‘부녀자 계몽지’ 『제국신문』의 독자 투고란의 의미가 밝혀진 바 있듯이, ‘독자투고’는 여성의 목소리를 공적 영역으로 불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시발점’이라는 중요성을 갖는다면, ‘독자투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매체에 여성의 글이 담기기 시작한 것은 1923년에 창간된 본격적 여성 잡지 『신여성』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잡지 『신여성』은 그 발행부수의 방대함(1923.9~1926.10, 1931.~1934.8 간행 통권 최소 70여 권)과 그 내용의 다양함으로 본격적인 여성잡지로

1)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p.339 참조

2) 천정환, 위의 책, p.335 참조

3)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 투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학술발표지, 2004.2.6.

불리워질 수 있는 매체이다. 그 이전의 여성 잡지가 여러 외적 여건상 최대 6호(『여자계』)의 발행부수를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잡지 『신여성』을 발간한 당대 최고의 출판문화운동의 場, ‘개벽사’의 위용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 잡지의 의미는 단지 외적 결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공적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일, 즉 ‘독자투고’란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시킨 데 있다. 이미 이러한 점은 김민숙⁴⁾의 글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잡지 『신여성』은 창간 초기부터 독자들의 글을 모집한다. 이미 자매지 『개벽』에서부터 『어린이』까지, 독자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한 개벽사의 편집 방침은 『신여성』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⁵⁾ 이는 독자를 주제로 키우겠다는 개벽사의 계몽적 일념이 좌옹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여성』의 ‘독자투고’란은 점차 열의를 더해가는 여성들의 자기 표현에의 열정을 받아안고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는 역할을 한다. 1910·20년대에 문인이나 기자가 된다는 것은 곧 당대 최고의 인텔리 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때,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수용될 지면을 얻는다는 일은 당연히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열정의 밀도는 30년대에 이르러 잡지 『신여성』에 더욱 늘어나는 독자의 글과 비례한다.

그런데 독자투고란에 입성한 글들은 당대 대중들의 글쓰기 수준과 문학적인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어떤 면에서 여성들이 투고한 작품들은 당대 대중이 매체들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

4) 김민숙은 『신여성』의 독자투고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남성들이 지칭하는 감상적인 ‘여성적 글쓰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김민숙, 『『신여성』과 ‘독자’—읽는 독자, 쓰는 독자—, 수유 연구실+연구공간 ‘너머’ 겨울 강좌 근대매체시리즈 2 《신여성》을 읽는다, 강의안, 2004.1)

5) 자매지인 『개벽』(20.6)과 『어린이』(23.3)도 각각의 창간호에서부터 ‘기고환영’이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시작한다. 투고범위도 ‘언론, 학습, 종교, 문예’로 다양하였다.

러므로 이 글들은 매체가 지향하는 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수록된 글들은 수많은 독자투고문 속에서 매체에 의해서 선별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편집부는 독자의 글에 과감한 첨삭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신여성』의 투고 광고에는 ‘글로 쓰기 어려우시면 사실만 늘여서 보내시면 본사에서 대신 써드리겠습니다⁶⁾’라고 한다. 이러한 점은 독자들의 글쓰기 역할을 강화한다는 논리 하에, 근대적 매체가 독자투고를 통해 구미에 맞는 글쓰기 양식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근대 이래로 여성들의 글쓰기는 ‘매체’를 통해서 학습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늘 ‘여성적’ 글쓰기, ‘여류’ 문인으로 차별화되고 배제되어 온 여성주체 글쓰기에 대한 수식어는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잡지 『신여성』에 실린 독자투고문을 살펴보는 것은, 근대 이래의 여성들의 글쓰기가 ‘매체’라는 문학적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또 어떠한 매커니즘에 의해서 배제되는지 그 실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는 여성주체 글쓰기의 근원을 살핌으로써 그 편견의 내재적 끈을 끊는 기본적 발걸음을 시작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연구 대상의 설정 — 『신여성』 ‘독자투고’란의 양상과 ‘독자투고’의 신빙성

근대 초기의 매체들이 독자투고 통로를 열어놓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매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독자투

6) 「社告」, 『신여성』, 6권 10호(32.10), p.23 참조.

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글이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동시에 독자들의 반응을 통해 매체의 논리적 정당성을 확인하려 한다. 둘째, 광고 효과이다.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동등한 처지의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독자와 매체 혹은 그들끼리의 연대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매체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광고하는 효과도 함께 얻는 것이다. 셋째, 필자와 기사의 양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 초기에 매체를 만드는 일은 소수의 선각자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매체를 만들어 갈 일꾼. 필자들이 절대부족하여 지면을 메꿀 기사의 소재를 확보하고 집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자투고를 통해 기사의 소재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독자투고를 환영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독자들로 하여금 잡지의 편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동지의식을 줌으로써 독자들을 주체적인 필자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여성 잡지의 독자투고란은 몇 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첫째와 둘째의 목적을 해결해주는 꼭지로는 주로 독자감상문류이나 독자 통신 등을 들 수 있다. 『신여성』의 「독자와 기자」란, 「여학생 통신」 등은 주로 짤막한 지면을 빌어서 독자가 평상시 편집부에 궁금했던 점이나, 바라는 점. 그리고 즐겁게 읽었던 기사에 대한 짧은 감상들을 보내오는 란이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의 목적을 위해 개설된 란은 기획기사들과 독자논단, 독자문예 등이다. 주로 기획기사과 논단은 그 전호에 주제를 광고하고 다음 호에 투고된 원고를 선별하여 신는다. 3호(24.3)에 대대적으로 선전된 ‘현상모집—남자에게 바라는 일, 여자에게 바라는 일, 여학생 잘못, 남학생 잘못’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가 그 예이다. 독자문예의 경우는 특별한 주제없이 자유롭게 모집하는데 독자의 자발성과 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란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편성된 독자투고란들은 『신여성』 이전의 잡지에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개 미미하거나 내용이 한정되어 있었

다.7) 그런데 아예 독자의 자유로운 투고를 허용하지 않았던 여성지인 『여

7) 『여자계』(1917.12~1920.6)의 경우, ‘本誌의 編輯上 關係로 本社에서 부탁드린 이에게 한하여 기고를 받기로 합니다(독자란은 此限에 부재함)’이라는 공고하에 독자투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3호(18.9)에서는 ‘현상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분야는 논문(조선여자계문제로 부의)과美文(문제, 고향의 녀름)으로 입선시 등수별로 각각 3.2.1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있다. 그러나 4호에서는 지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지못함을 사과(『편집여언』, 『여자계』 4호, 1919.3, p.66 참조)하고 있으며 독자의 투고를 제한한다. 동경 재여자유학생 친목회의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잡지의 특성상 이루어진 편집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출판, 기관지라는 특성. 그것도 유학생 기관지인 까닭에 역량있는 필자들의 포진은 이들에게 굳이 문호를 개방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하 것이다.

『신여자』(1920.3~1920.6)의 경우는 개방적이었다. 창간호(1920.3)에서부터 ‘투고환영’이라는 광고하에 ‘우리여자네의 하고싶흔소리를 발효하기위하여 나온 것이 신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여자는 편집인 몇 사람의 것이 아니다’(1호)로 하면서 ‘진정한 열성으로 사실을 자백하여 우리여자 사회를 도와주겠다는 여자의 글은 무엇이나 환영하여 받’는다(2호)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2호에 독자로 보이는 방신영이란 이의 「신여자를 讀하고」라는 독자감상문을 실어 자신들의 방침을 실현하고 있다. 3호부터는 ‘정신학교생도’ 등 여학생들의 글이 보이고 있다.

『부인』(1922.6~1923.8)은 훨씬 더 개방적이다. 잡지 『신여성』의 전신으로 개혁사의 개방적 방침을 실현하고 있는 이 잡지는 창간호에서부터 독자의 글을 모집하고 있다. ‘소설이나, 취미있는 글, 부인에게 필요한 것을 재미있게 씬여서’ 보내달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잡지 『신여자』의 글이 주로 고백이나 논설류 등 논픽션에 가까운 글들이라고 한다면 『부인』에서 요구하는 글들은 ‘재미있게 씬여서’와 같은 수식이 붙는, 소설이나 좀 더 문학적 재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구나 여기서 비로소 ‘독자문단’에 대한 광고가 출현한다. 비록 독자의 역량 때문인지 편집부의 사정인지, 결과물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독자문단의 특화는 문학의 대중화가 여성독자에게도 여파를 미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편집부의 배려에서 출현한 것이다. 그밖에도 이 잡지의 특이한 기획은 ‘만가지 고민’란의 신설이다(1권 2호, 22.7). 만가지 고민란은 ‘위생, 가덕, 빈민, 상식, 미용’ 등에 관한 독자들의 고민을 듣고 편집부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이 이에 답을 하는 형식의 꼭지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글들이 투고된 이란은 ‘남편이 무식하다고 구박한다’는지, ‘친정돈을 가져오라는 시어머니의 구박’,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데 대한 고민’, ‘아편쟁이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인가’ 등 가족 간의 갈등, 지식에의 욕구 등 당대의 여성의 중요한 고민들이 토로되고 있다. 물론 그들의 문체가 다들 비슷한 점을 보면 편집부의 윤색이 많이 가미된 듯하지만, 이 양상은 1920년대 여성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표

자계』로부터 창간초기부터 독자투고를 환영한 『부인』까지 여성잡지에서 독자투고란은 점차 개방적인 성격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제 여성잡지도 편집진 중심의 일방적인 훈육성 발언에서 벗어나 독자와 편집진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보다 발전적인 개방성을 견지하게 된 것이다.

잡지 『신여성』은 이러한 개방성을 공유하고 출발했다고 본다. 창간호를 구할 수 없기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⁸⁾, 『부인』의 편집 방침이 그대로 이월 되었으리라는 확신에 의하면 『신여성』은 창간호부터 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는 확인할 수 있는 최초 號인 『신여성』 2호(23.11)에 실린 독자란, '여학생 통신'란은 이를 짐작하게 한다. 그밖에 2권 6호에 광고된 '독자와 기자'란, 3권 5호에 시작된 '독자논단(여인논단)', 4권 6호에 광고된 '독자문예'란과 신설된 '독자회화실' 등과 5권 10호에 신설된 '여인사론' 등은 서로 교체되면서 각각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통로 역할을 해 내고 있다.

이들 꼭지들은 첫째, 이미 규정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논단'류를 제외하고는 대개 짙막한 단상들로, 한 주제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여러 기획 기사들, 둘째, 잡지에 대한 궁금증과 건의사항, 독서감상문들로 채워진 '독

현하는 데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음을 증명해 준다. 더불어 여성잡지가 인텔리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독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 '아무쪼록 실제 생활을 쓰도록'(5호)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독자투고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차 독자투고의 꼭지들이 세분화되어 신설되고 있다는 점도 점차 여성들의 글쓰기에 대한 욕망, 독자 참여의 중요성을 잡지의 편집진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부인』은 '독자문단'이외에도 '독자의 소리와 편집실 고백'란의 신설(2권 4호)하고 있었다. 『신여성』의 '독자와 기자'란의 전신으로 보이는 이 란에서는 '실익기사를 많이 실어달라, 첫불리 남녀평등을 부르짖지 말라', '우리 부인들의 부족한 점만 말하지 말고 장기와 좋은 점도 말해달라'는 등 독자의 소리와 '연애와 리혼문제는 다루나 성욕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편집진의 발언은 당대 가치관의 여러 층위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잡지라는 매체가 편집진 중심의 일방적인 훈육성 발언에서 벗어나 독자와 편집진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보다 발전적인 개방성을 견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현재 구할 수 있는 영인본(현대사, 역락)에는 창간호가 누락되어 있다.

자와 기자’, ‘독자회화실’ 등 독자와 편집진의 커뮤니케이션의 場, 셋째, 잡지에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유사 기자 프로그램, ‘여학생 통신’, ‘여인사론’ 등과 넷째, ‘독자문예란’ 등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밖에도 신여성의 주요 필자가 아닌, 낯선 필자의 글들은 지면이 늘어난 30년대 이후 기사의 양적 빈곤을 매꿔 주기 위해 이미 투고된 독자들의 글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독자투고의 양상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 전량이 판매되었음을 자랑하는 편집진의 ‘편집여언’의 과장된 언사를 가능하게 한 개벽사 잡지 편집의 대중적 감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당대 최고의 베스트 셀러인 『사랑의 선물』⁹⁾과 대중적 아동잡지 『어린이』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신여성』편집인 방정환의 감각은 1920년대 출판문화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심 원동력이었다. 『어린이』지와 함께, 『신여성』에서 상대적으로 글쓰기에 소외된 계층인 아동과 여성 독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정환의 계몽적이고 대중적인 편집 방침은 독자투고란의 다양화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의 글쓰기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독자투고문의 진위여부이다. 즉 독자투고란에 투고된 원고의 집필주체가 과연 순수한 일반 독자들이었는가의 문제이다.

‘전체 여성의 1.9%, 한글 또는 일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10.5%에 머’¹⁰⁾무는 현실적 수치는 이 문제에 대한 실증을 회의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잡지 『신여성』이 광고하는 독자투고문의 광고와 편집여언에 실린 독자투고문에 대한 언급 또한 이 문제에 신빙성을 실어주지 못한다.

9) 『사랑의 선물』의 정확한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신여성』과 『어린이』 등에 실려있는 광고에 13쇄까지 공고된 것을 보면, 그 이상 인쇄되어 팔렸을 것이다.

10) 천정환, 앞의 책, p.339 참조.

신여성에 투고하시라는 여러분께 두어마디.
 글은 반드시 순언문으로/ 한사람이라도 더 읽히기 위하여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길으면 편잡하기가 곤란합니다
 원고의 추심은 맡아주십시오/서로 미안만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조나 나즈나 우리의 실지 생각을 발표하기로 합시다

(3권 3호, 25,3)

투고환영

육아경험담 가정실책기 생활공개장 사실애화 기타 시가 소품문
 독자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조금도 주집어마시고 그때그때 늦김과 경
 험이든가 생각하시는 것을 적어보내주십시오. 내용만참되고 조흔기사이면 글
 의잘잘못은 편집국에서 성리해드립니다.

(7권 4호, 33,4)

‘순언문’이라는 어문규정과 ‘한사람이라도 더 읽히기 위하여’라는 규정
 은 잡지 『신여성』이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의욕
 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실지생각’을 담으
 라는 충고는 글쓰기의 본령이 진실된 자기 표출에 있음을 확인시키는 대
 목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독자들의 열망이 이들의 기대에 부응
 하는기에 있었다.

‘내용만참되고 조흔기사이면... 글의 잘잘못은 편집국에서 정리해드’린다
 는 언급은 『신여성』에 실린 독자의 글이 편집진에 의해서 상당부분 윤색
 된 글일 가능성을 높인다. 내용은 독자의 것이되, 형식 혹은 내용의 일부
 도 편집자에 의해 편집된 글이라는 결론이다. 그리고 1920년대 발간 초기
 『신여성』에 실린 독자들의 글은 기자들이 직접 그들의 의견을 들어 기록
 한 것이다. 이 점은 초기 『신여성』의 기사 말미에서 편집자가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관적인 결론 이면에는 편집진의 독자투고문에 대한 태
 도가 작용하고 있었던 듯하다. ‘편잡’을 위해,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투고문을 써달라는 부탁은 편집진이 독자투고에 답을 내용을 그다지 진지

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잡지 『신여성』의 성격을 분석하면, 그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진다.

잡지 『신여성』은 방정환을 중심으로 방정환, 김기전, 박달성, 차상찬 등 개벽사, 천도교 청년회원들이 만든 잡지이다. 여성 필자는 송계월을 비롯 박경석, 장덕조, 최의순 등 개벽사 부인기자들과 허정숙 등 당대 신여성들인데, 이 여성 필자들의 지면은 남성 필자의 1/2정도에 불과하다. 이 점은 잡지 『신여성』이 여성을 위한 잡지가 아니라, 천도교의 ‘문화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대상’의 계몽 잡지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천도교 ‘내수단’이라는 부인 단체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잡지 『신여성』은 청년당 중심으로 꾸려졌다. 그리고 당대 중심으로 활동했던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등 당대 신여성들의 글이 초반에 보이다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상 역시 이 잡지는 여성을 주체로 하고자하는 매체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신여성』이 ‘독자투고’란을 활성화한 것은 독자를 창작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사람이라도 더 읽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매체에 비할 때 상대적인 결과임은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 방정환을 비롯한 개벽사 매체들의 독자투고란에 대한 열성과 독자투고란에 대한 당대 대중들의 호응은 실로 대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이 경우는 ‘작문’란과 ‘입선동요’란, 그리고 ‘독자담화실’, ‘쏟힌 글’ 등 독자투고란이 각각 따로 운용될 정도였으니, 실로 방정환의 글쓰기 교육에의 열망과 이에 호응하는 독자들의 열정은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투고문을 현상모집할 때 반드시 ‘독자증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증명이 없을 경우 과감히 수록을 거부하고 있어 글쓰기의 주체가 순수 어린이 독자일 가능성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투고자들 가운데 윤석중과 최순애, 서덕출, 신고송, 이원수 등은 편집진과 독자들 사이에서 이미 기성 작가로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 점은 다른 독자들의 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이미 우리에게 정전으로 인정된 윤석중의 ‘오뚝이’, 최순애의 ‘오빠생각’, 이원수의 ‘고향의 봄’이 『어린이』의 독자투고문이었다는 사실은 당대 독자투고문의 수준과 인정된 위용을 증명해주는 점이다.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당대의 독자투고는 미처 제도화되지 못한 등단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신여성』의 편집인 역시 이러한 『어린이』지 독자투고문을 기획하고 이끌어간 방정환이었다.

그러면 『신여성』 독자투고란의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문학을 통한 계몽이라는 관점을 견지했던 방정환의 주요 활동무대가 『어린이』였다는 점. 어느 때는 거의 『어린이』 한 권 분량을 거의 자신의 글로 메꾸었던 방정환의 여력은 『신여성』 편집에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실제적으로 당대의 새로운 청년 세대로 기대되고 있는 ‘어린이’의 활력에 비해 여성들의 투고에 대한 용기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정도 작용한다고 본다.

그러나 『개벽』에도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던 ‘현상문예’제도가 『신여성』 내에서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침삭’ 가능성은 이들이 여성독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추측하게 한다. 침삭 공고는 여성독자들의 투고 용기를 북돋우고자 하는 의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여성은 당연한 글쓰기의 주체로 서기엔 늘 함량미달의 존재였음을 공공연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여성』에 실린 독자의 목소리들이 전적으로 편집진의 글이라고 볼 수 없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 김명순이 이광수의 극찬을 받으며 『청춘』으로 등단한 것은 20년대 이전인 1917년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투고된 방정환의 글¹¹⁾보다 주목받는 작품을 투고했던 김명

11) 방정환이 이즈음 『청춘』에 열심히 투고한다. 투고한 글은 엄희경의 방정환 연보에 의하면 「낙화」(무기명, 한시), 『청춘』, 1915.3, 사승생, 「바람」(시), 『청춘』, 1918.3, 사승생, 「자연의 교훈」(수필), 『청춘』, 1918.4, 사승생, 「우유배달부」(소설), 『청춘』, 1918.4, 방정환, 「관화」(수필), 『청춘』, 1918.7, 방정환, 「봄」(시), 『청춘』, 1918.7으로 알려져 있다.

순의 역량, 그리고 앞서 밝힌 ‘오빠 생각’의 최순애, 『신여성』 단골 투고자로서 잡지 편집진으로 스카웃된 이선희의 존재는 극히 소수일지라도 당대 여성들의 투고 역량이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독자 투고문의 필자명이 이름 중간 글자가 ‘서울 재동의 박정○’, ‘○경자’ 식으로 복자처리된 이유가 현역 교육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제자들의 투고 자체를 꺼려하는 당대 분위기와 함께 독자투고문의 실질적 존재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열정이 수용되는 편집진의 방침에 있다고 본다. 늘 『어린이』나 『개벽』에 당선된 투고문에 選後感을 실었던 개벽사 편집진들의 열성, 즉 당대 근대적인 글쓰기 방식을 조련하고자 했던 계몽적 의지는 『신여성』에서는 침삭이라는 더욱 고압적인 형태로 실현된다. 즉 그들에게 여성들의 글은 남성들의 글처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있게 다듬을 대상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시대’라는 다소 과장된 언사도 가능했던 1920년대의 분위기에서 ‘문학’의 향유는 곧 근대적 교양인의 표상이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당대 여성들의 글쓰기에 대한 열망의 강도는 결코 『신여성』 독자투고문의 분량보다 적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30년대 들어 점차 늘어가는 편집진 이외의 필자들의 필명은, 침삭여부를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의 자기표현, 글쓰기에의 열망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점차 여류문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1920년대 후반 이후의 글들은 비교적 문체면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순수 독자 창작물일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이렇듯 『신여성』 독자투고문들이 순수하게 독자들의 글일지, 그 진위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면을 추론할 때 『신여성』 독자투고란은 ‘여성’의 글쓰기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조련하려는 편집진의 계몽적 의도가 투사된 場이며, 그 속에서 지금까지도 운위되고 있는 ‘여성적 글쓰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그 곳은 이러한 의

도와 독자들의 순수한 주체적 목소리가 내용과 형식 양자에서 혼용되고 충돌하는 場이다. 그러므로 <독자투고란>을 통해서 여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1920년대 이후 조선에서 여성적 글쓰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역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셈이다.

그러면 이제는 여성들의 글쓰기가 『신여성』의 독자투고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만들어지는 글쓰기 — 『신여성』 독자투고란에 실린 글쓰기 양상

1) 자기표현의 글쓰기 — ‘번민’을 표현하라

잡지 『신여성』 3권 11호(25.11)는 『新女性煩悶號』이다. 여기서 『신여성』은 “新女性的 五大煩悶”이란 기획하에 ‘未婚女性的 남모를 煩悶, 女學校卒業한 處女の 煩悶, 自由結婚한 新女性的 煩悶, 職業을 못 求해서 우는 新女性, 舊家庭에 드러간 女性的 煩悶’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번민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열망, 세대간의 갈등 등 당대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특집 이외에도 번민 문제는 독자 투고 형식의 여러 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결혼 전에는근심과걱정이만터니 결혼뒤는그것이 비교덕적이진것이 엇더케 보면행복이라고할수있습니다 누구나녀자로서는 다당해보는일이지만 결혼귀에 대한녀자의번민고통이야말로여간이안입니다 평생의운명을결정하려는시귀인데 자귀의자주덕선택력(選擇力)은업고 남의주선밋해서그겨요행팔자만기다리게된 처녀의근심걱정이야말로 당해보는녀자자신외에는아무도몰을것입니다 내팔자하고 그겨운명에붓치고말게됩니다 남편이란그이게전신을막기다심히맞치만 리고범(萬里孤帆)이큰언덕이나만난듯이 비로소안심이됩니다!2)

남의안해인 저의가슴속에 남모르는번민과슬픔! 그것은 오죽 저의진정으로 남편을사랑할수업는슬픔임니다. 그랬더니 K씨와결혼한후로는 날마다시시로K씨와 P씨와비교되야 저의눈압헤얼른거리기시작하엿습니다. 이번민과이죄악을피하라면 모든것을닛기위하야이세상을떠나는밧게 다른무슨길이잇슴닛가.¹³⁾

婦人職業問題 이것은 오늘날 社會에 잇서서는 꼭 重大한 問題 中의 하나입니다....現在의 만흔 中等程度의 新女性들이 職業이 업서서 헤매입니다 或은 每日 이곳저곳으로 適當한 職業處가 잇나 彷徨압니다 그러나 업습니다 ... 女性은 압흐로 經濟的 獨立을 하잔으며 아모리 큰소리를 하여도 所用업습니다....그런데 우리 程度에 相當한 職業이 업스니 잇지함닛가¹⁴⁾

깃봄보다는 번민이 만습니다.

처음 몇번에는 별로 눈에 스투우지도 안던, 시골부인들의 가정생활하느데 모든 결점이 차차 들어나게되며 저는 지금까지 아모 심 모르고 그저 배운다고 만 한 것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철업슴 것을 깨달렸슴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배운다는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엿슴니다.¹⁵⁾

주체적 선택이 불가능한 ‘결혼’에 대한 번민,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서 느끼는 번민, 배운 사람으로 느끼는 사회적 책임에서 오는 번민 등은 자유연애에 대한 갈망, 사회적으로 당당한 주체가 되고자 하는 소명감에서 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막 깨어나기 시작한 여성의 자기 인식에 가장 첨예하게 다가오는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적 번민을 스스로 응시하고 글로써 ‘표현’해야겠다는 당위적 인식이다. 이들에게 자기 표현은 모순의 응시

12) ○경자, 「결혼전과 결혼후」, 『신여성』, 2권 6호(24.8), p.61 참조.

13) 匿名女,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번민」, 위의 책, pp.64~66 참조.

14) 김영희, 「新女性的의 職業에 對한 煩悶—職業을 求하되」, 『新女性煩悶號』, 3권 11호, 25.11, p.27 참조.

15) 이에경, 「방학동안의 시골생활—깃봄보다는 번민이 만습니다」, 『신여성』 4권 9호(26.9), pp.26~28 참조.

이며 고민을 풀 고리를 찾는 일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대 매체 『신여성』이 여성에게 열어준 중요한 기회였으며 이 기획기사들은 주로 여학생 등 인텔리 여성 독자들이 주체가 된다.

그러면 이렇듯 ‘번민’이 독자투고문의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번민(煩悶)’은 『신여성』에 실린 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번민’을 가져라, ‘번민’이 있다는 등의 술어가 자주 등장한다. 사실 ‘번민’이란 용어는 여성들만이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다. 1910년대 신문 잡지에 가끔 등장하는 ‘번민’이란 용례의 주체는 ‘청년’이다. 그러므로 ‘번민’은 근대적 인식의 주체로 떠오르는 신세대가 가져야 할 중요한 내적 덕목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여성잡지에서 ‘번민’이란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부인』의 독자투고의 정해진 범주에 ‘번민’이란 항목이 있었듯, 그것은 당대 계몽의 주체들이 『신여성』 독자들에게 부여한 내적 덕목이었다.

모든 것이 뒤집혀 작명되려는 이 때에 잇서 묻져 녀자된 사람, 특히 무엇을 알면 알게된 새녀자들은 묻져 종래 또는 현재의 자기가 가진 심리이며 생활 근본으로 잘못되고 더러운 것임을 분명히 의식하고, 여귀에서 스사로 죽을 지경에 빠지는 자기번민을 늦쳐야 할 것이다. 그러타 맨 묻져 필요한 것은 자기번민이다. ... 「오늘이 사회의 제도며 환경이 얼마나 사람의 참다웁게 살녀고 하는 길을 막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반녀자 또는 자기의 그와 가튼-경우에도 닳지 안는 더러운 감정이나 생활을 가져온 것도 온전히, 오늘 사회의 지여 노흔 주위환경이 그러케 식인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것을 깨닫는 때에 오늘 새녀자의 가질 생각은 할 일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오 온전히 자기와 싸우고 사회와 싸울 한 가지 일 받게 업는 것을 늦기게 될 것이다 위선 이만 쓰자.¹⁶⁾

女性이라는 것은 오랜 예전부터 ..壓迫밧해서 自由업시 오직 奴隸의 生活을

16) 기전, 「당신에게 ‘자기번민(自己煩悶)’이 있습니까 : 신여자의 치욕생활 최악 생활」, 『신여성』 2권 5호 『너름 특별호』(1924.7), p.24 참조.

하고 지나왔습니다....그러면 人間으로서 共通된 煩悶을 맛보면서 더한층 나아가서 女性으로서의 特殊한 煩悶을 맛보게되는 女性의 煩悶이야말로 重大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男性的 煩悶이 百斤重이라고 假定하면 女性의 煩悶은 二百斤重이라고 假定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煩悶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過去社會는 女性을 半身不遂의 病身을 만들어 노앗기 때문에 健康한 男性이 하는 煩悶을 女性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人間으로 보아 半身不遂의 女性의 煩悶이 따로 있을것입니다....新女性과 舊女性.. 新女性은 舊女性보다 배우고 안다는 點에 있어서 舊式女性보다 좀 다른 煩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女性이라는 根本問題에 드러가서는 갖흔 煩悶을 맛볼 수 있다고 生覺합니다....우선 學問에 대한 煩悶... 舊式婦人은 一字無識을 恨歎... 新女性은.. 自己의 知識이 남만 못한 그 點에서 다시 不平을 니르켜가지고.. 結婚에 對하여서도... 舊女性은 아지못하는 사람에게 出嫁하여.. 煩悶.. 新女性은 서로 사랑한다하고 結婚...무슨 苦痛이 잇스라할터이지만은..男性이 優越權을 가지고 專橫하며 拘束하며 壓迫하는 그 點....조금도 다름없는 苦痛을 받게 됩니다..

우리 女性의 煩悶을 完全無缺하게 解決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地盤을 한번 살리여볼 必要가 있습니다...꼭 한가지 原因..그것은 우리가 살고 잇는 ○○○○의 缺陷이 잇는 까닭..그럼으로 우리는 女性의 眞實된 解放이나 異性間의 사랑이나 生活의 安定이나 家庭의 煩悶이나 職業에 대한 煩悶 其他 모든 女性의 煩悶을 오직 根本問題解決이라는 열쇠가 아니면 도모지 解決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解決의 열쇠를 손에 잡어야 될 줄 압니다.¹⁷⁾

위의 글에 의하면 ‘번민’은 ‘생활 근본으로 잘못되고 더러운 것임을 분명히 의식하고, 여기에서 스스로 죽을 지경에 빠지는’ 것, 인생에서 생기는 ‘꿈’와 서로 連結된 한 ‘想念’¹⁸⁾이다. 허정숙은 더 나아가 ‘번민’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구여성’과 다른 ‘신여성’만의 특권인듯 서술한다. 그리고 위의 두 지식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선의 현실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번민’이 더 많다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번민, ‘학문에 대한 번민’, 남

17) 허정숙, 「우리 女性의 煩悶을 論하야.—女性의 煩悶과 解決策」 『신여성』 3권 11호(25.11), pp.2~7 참조.

18) 허정숙, 앞의 글, p.2 참조.

성의 압박에서 오는 번민 등, 결국 여성에게 '번민'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외적 구조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열악한 현실에서 싸우고자 하는 데서 오는 내적 고통이 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번민'을 알라는 말은 조선이란 사회에서 여성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번민'에 대한 요구는 위의 두 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계몽의 주체가 '신'여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당위적인 요구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번민'은 '내면'이란 용어로 치환해도 가능한 말이다. 문학사에서 '내면'의 발견은 곧 공공의 열정이 소거된 자리에 대체된, '제도'에 가까운 형상이다. 일본 근대 사상사에서 '번민'(내면)은 '비분강개'가 사라진 자리에 새롭게 대체된 것¹⁹⁾이었으며, 언문일치체를 이루어낸 계기이기도 하였다. 여성들에게 '번민'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끊임없이 사적영역으로 여성의 활동반경을 제한하고 싶어하는 당대의 상황에서야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글쓰기가 여성에게는 다른 국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성에게 자기 '번민'의 표현은 곧 여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는 문체였던 것이다.

위의 투고문들에서 주체들의 의지는 김기전과 허정숙의 당부처럼 치열한 자기 번민, 외적 모순과 싸울 고통스러운 각오에는 미치지 못한 듯하다. 이 글의 필자들은 대부분 의식은 깨어있으나, 자신의 주체적인 결단을 시행할 용기가 없음에 대해 자책한다.

그러나 여성에게 '번민'을 표현하는 것은 '김영희', '이에경'의 글에서처럼 '사회적 자아'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했다.

허정숙은 '女性아 우리는 感情을 살리자 또 煩悶을 니르키자. 또 苦痛하자 여긔서 새로운 뜻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²⁰⁾'고 했다. 이 열매가 여성들

19) 가리타니 코오진 외, 송태욱 역, 『근대 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2002, pp.19~44 참조.

20) 허정숙, 「감정을 살리라(권두)」, 『신여성』 3권 11호, p.1 참조.

스스로가 시작한 근대적 글쓰기에 이전되어 그 힘이 된다. 이는 나혜석, 김명순, 김원주 등 당대 여성 작가들의 글에 드러난 치열한 자기 성찰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번민'을 자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신여성』편집진의 의도대로, 여성들의 근대적 글쓰기의 기본 토대로 자리 잡게 된다. '번민'이 없는 곳에 '글'도 없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글들은 점차 남녀평등의 문제 등 '사회적 문제', '자유연애'와 '가족' 내부의 문제로 채워졌다. 『신여성』 발간 후반부인 30년대로 넘어갈수록 여성들에게 내적 고통은 늘 연애와 가족 등 사적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는 '신여성'에 대한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쓰고자 하는 글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여성들의 투고된 글들은 점차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그 다양성을 포기하게 된다.

2) 길들여진 '여성적 글쓰기'와 저항적 글쓰기의 경계 — '사소함'과 '은밀함'의 공론화와 신뢰적 글쓰기

『신여성』의 독자투고란은 매체가 잡지라는 특성상 앞에서 증명한 진정성만큼이나 대중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신여성』에는 성격의 일면을 반영하는 '색상자'라는 란이 있다. 이 색상자에는 나혜석, 김일엽, 김미리사, 송계월 등등 『신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대 '신여성'들이나 명사의 사생활, 혹은 명사의 행동이 아니어도 장안의 가십거리가 될만한 기사들이 실려 있다.

한창때 강단 우에 나설 때마다 리혼(離婚) 리혼하다가 아조 몸으로 그것을 실행한 김원주(金元周) 녀사는 그후 일본서 나와 서울 룩조 압 그의 애인의 집에서 련에 생활을 달게 하고 잇는데 조금 납작하든 코날을 일본잇슬 때 용비술(隆鼻術)로 곳쳐서 옷둑하게 되기는 하엿는데 그대신 살이 켜겨서 두 눈

이 가운데로 조금 쏠렸더니요. 이것은 가서 만나보고 왔다는 이의 말(4호, 24.3, 71쪽)

이처럼 다소 악의적인 표현으로 마치 취재한 실상인듯, 김원주의 연애 생활, 성형 등 내밀한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는 이러한 기사들 모음이 바로 '색상자'란이다. 그밖에 '신알베르트씨가 너무 바빠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다는 것이 장갑을 넣어버렸다는 이야기'(2권 6호), '윤심덕 옆에 한 청년이 매일보이는데 곧 결혼할 것이라는 이야기'(2권 11호), '스토킹당했던 이화학당 제일의 미인이 정미소 아들의 첩이 된 이야기'(2권 11호) 등 '색상자'가 추구하는 사소하고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는 관음증적 재미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호기심은 또 다른 호기심을 낳게 되고, 그것이 독자 투고의 한 내용을 자치하게 된다.

기자와 혹은 독자끼리의 호기심어린 수다도 가능한 '여인사론'과 '독자와 기자', '독자회화실'에 실린 내용은 '근우회, 박인덕 등의 소식에 관한 문의'(5권 10호—여인사론), '개벽사 기자의 필명에 대한 궁금함'(6권 11호), '지난 호에 실렸던 주근깨없에는 법에 대한 질문'(6권 3호) 등 주로 사소한 것들이다. 그러나 내용의 잡다함에도 이러한 특성의 란은 잡지의 필수적인 꼭지로 등장하고 있어서, 여성의 글쓰기의 일변향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여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글로써 문의하는 일은 당연한 권리이며,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묻는 일도 더 이상 민망한 일이 아니게 된다.

『신여성』에서 이처럼 사소하고 은밀한 일상적 담론들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잡지의 흥미위주로 기획된 기사의 모범과 독자들의 답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글쓰기는 여성의 글쓰기가 사적 영역의 조잡스러움에 머문다는 멍에를 풀어지게 하는 원동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 편, 이러한 사소함 이외에도 『신여성』에 실린 독자의 글 중에는 편 집진들이 배겨했던 감상적이고 신파적인 글쓰기가 존재하기도 한다.

-사춘기 소녀의 심경

S언니!..참말이어요 사람이 그림어요. 언니가 그림어요 맘껏 부등켜안고 숨 백히는 키스를 하고 싶혀요. 언니!..아마 소설을 읽고 게실게여요... 언니가 나를 귀여워만해주셨다면 얼마나 세상이 더 쓸쓸하앗을까요..... 莢이의 서간지에는 이런글이 십여장을 써워서잇섯다...사춘기의 소녀! 붓그러운 감정과 까닭모를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 ㅈ의 소녀들! 윤택나는 눈동자에 그리운 표정이 써오르고 아득한 사모의 정이 가슴에 다름질치는 그 ㅈ의 소녀들!..스윗트. 씩스틴! 꿈의 열여섯이다. 공상과 동경에 아로색여진 썬티멘탈!- 그것은 잠자든 소녀들의 가슴속을 비로소 헤트려 늦는 것이갓다.²¹⁾

-노처녀의 심경수필

노처녀의 구슬은 심정! 말도마서요. 나의 썬어허무러진 이 마음을 아러무엇 하리요입니다...내 얼골고 그리 못난축에는 안들 자신이 잇서요.. 그리고 우리 부모 먹여살리기 위하야 시집못갈 형편도 아니엇답니다...시집안가는 리유를 은근히 내비치지만 콧곳에 바람이 날만큼 간지럽고 북그러운 생각이 왜 안나갓서요...근 20년동안이나 노처녀의 서름을 가지고 지내왔스니 그 서름이 여간 서름입니까...못피우든 담배를 남몰래 피우노라고 하로밤에 마코가 두갑세갑이 엇서져 버린답니다.... 세상에 엇던 년들은 실연한번하고도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여자는 업서...그러다가 나중에 ㅈ애로 시집가서 잘사는 년을 보면 눈살이 틀리다 못해 그 아가리를 썬져버리고 심혼 생각이 나는걸요.... 노처녀 이 십년생활에 마음이 썬고 뒤집혀서 원만큼 원한일에는 이러케 신경이 날카러워지고 기가납니다... 하로에도 틈나는대로 몇번식 화장을 해야만 속이 편해요 그러기 때문 세상에서 제일 조타는 화장품은 기를 쓰고 샅니다....또 철짜라 화려한 옷감이면 돈 약기지 안코 해입어봅니다...²²⁾

위의 글은 ‘사춘기 소녀’, ‘노처녀’ 등에 대한 보편적 선입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사춘기 소녀의 공상과 동경의 ‘센티멘탈리티’에 대한 자랑스러움, 노처녀의 소위 ‘히스테리적’ 상황의 거침없는 표출은 구어체의 문체와 어울려, 술술 잘 읽히는 재미를 부여한다.

21) 김순영, 「처녀심경수필집—언니 저 달나라로」, 『신여성』 7권 6호(33.7), p.54 참조.

22) 김희성, 「錄分에도 空籤 잇나」, 위의 책, p.56 참조.

그런데 구어체적 문체에서 풍겨나오는 풍자적 어조와 입담은 『신여성』의 인기 폭지인 '신여성' 풍자 비행기인 「은파리」란의 어조²³⁾와 다소 비슷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 두 작품은 편집진 중 누군가가 독자의 글을 윤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자가 한창 유행이었던 은파리식 문체와 내용을 흉내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 역시 유행으로 답습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신여성』에는 이러한 개인사가 녹아있는 신세한탄식 글이 종종 보인다. 예를 들자면, 사기당해 첩이 된 이야기 같은 내용²⁴⁾, 기생이 된 이야기 등

23) 청산유수로 쏟아내는 유연한 입담이 은파리의 작가와 비슷해 보인다. 일 레로 은파리의 본분과 비교해보자.

아모러한곳에서라도 올치못한것을하여보아라, 다른사람못보는곳이라고 낯본것을하여보아라! 은파리눈에야 들키지아닐법이잇슬줄아느냐(24) ... 거짓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거짓말하고만 잘살게되는 이놈들의 세상에는 엇던일이 고 그속이잇고 그속의 또속이잇는것을 나는 알고잇다 아모놈이나붓잡고 그뒤를 밝히면 죄는쏘다져나온다. 째땃천이들쳐나온다. 그것을 나는 알알이들쳐내여야 한단다 거기에 은파리의살아잇는갑이잇단다.(25)

그러나 세상은변하였다. 젓가슴이 허-엿케보이던 짧은저고리가 배스릅에까지 내려오고 그대신 신발뒤축을덥던치마가 무릎위로올나가게까지 세상은변해졌다. 무슨말인지모르겠스나 님녀평등남녀평등하고 히니기소리를네넛가 모다들 속도모르고올겨부르더니 그래그랬는지 저래그랬는지물나도 녀편네가 머리를귀 밧까지잘러버리기시작을하였다. 엿젯던지 머리로유별이든것이 머리로 평등은 된세음인모양이다. ... 녀자는 머리만썩으면 유명해진다 단발랑이니 단발미인이니하고 눈치즌 신문기자들이자조쫓쳐단기는짜답이다. ... 남편이죽어서머리를썩 거버렸네 식집가기실혀서머리를썩겠네 공부하기가실혀서머리를썩겠네 그럴듯한소리만 골라다하지만 중의대가리처럼밭작밀어버리지안는것이 그들의약은씨이다.

(목성, 『풍자만필—은파리』, 『신여성』 2권 6호(24. 6), pp.24~26 참조)

24) 이 수기에서 필자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학교에 보내주시는 등 진실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나, 연애소설 때문에 타락의 길로 빠졌다고 한다. 결국 등록금을 애인에게 갖다바치고 그것이 들통나자 집을 나와 애인과 동거하였으나, 알고보니 애인은 시골에 본처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 애인에게도 버림받아 집으로 돌아가서 고무공장에 다닌다는 얘기. (혜란, 「일즉이꽃되얏든몸으로」, 『신여성』 3권 5호(25.5))

은 때론 남성 필자에 의해, 때론 독자로 보이는 여성필자에 의해 변주되고 있다. 마치 당대 유행했던 신파극이나, 유행가의 레파토리들처럼 ‘운명에 순응은 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율배반’에서 오는 신파 양식의 비애감²⁵⁾ 같은 정서가 여기에 녹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잡지에 기고되는 특유의 글쓰기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만약 독자의 순수 창작물이라면,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유연함을 가질 필요도 있다. 특히 후자의 글의 경우, ‘씩어허무러진 마음’, 상처와 세상에 대한 원망의 적개심이 공존하는 분열적 내면을 그대로 거침없이 표출하는 방식. 그것 역시 노처녀를 일탈자로 만드는, 억압적 세상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다. 분열된 의식이 표출되는 순간 세상의 단단한 억압적 인식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편집진은 겉으로는 감상적이고 고급스럽지 않다고 배격하지만, 대중성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편집진의 이율배반 속에, 길들여진 것 같지만 나름의 논리를 갖추어가는 글쓰기 방식, 신파적 글쓰기는 대중적 여성 계몽지 『신여성』이 창출해 낸 또 다른 글쓰기 방식이었다.

3) ‘배제된’ 문학에의 욕망 — ‘문학소녀’라는 명명법의 허구성

『신여성』에서 ‘번민과 함께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독서’와 ‘문학’이다.

경성제국대학 최고의 수재 유진오가 과감히 문인의 길을 택했듯 당대에 문학은 최고의 인텔리의 표상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에게도 문학은 모순된 정체성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의 매개체이기도 했다.

25) 이영미, 「일제시대, 트로트와 신민요의 양립」, 『한국대중가요사』, 시공사, 1999, p.7 참조.

돈업는 신세

“학교는 졸업하였나이다. 나는 문학공부가 소원이외다. 그러나 내동생 또
 꺾혀서 동생까지 학교에 단기는 터인데 엇더케 아버님의 인력겨 찌는 수업에서
 내 학비를 엇으리잇가. 아아 돈-돈- 사람은 이래서 타락되기 쉬운 것이겠지요.
 아아! 돈! 돈! 돈! 26)(36)

나는 이런안해를바랍니다

자기 소개- 차남. 세간나서 살 정도의 살림. 문학애호자로 정신적 내적 생
 활 중시하는 자

내가 바라는 아내- 마음 좋고, 취미가 같고 경건한 마음, 자애가 많은 고결
 한 여자.

천박스런 아양을 부르거나, 얼굴을 숙이고 남편을 귀인대접하는 여자는 싫
 다.27)

마리아로부터 혜숙씨에게(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새빨간 땀기를 하던 혜숙이는 조선옷도 아닌 이상스런 새까만 옷을 입고 수녀
 노릇 하고 있다. 친구도 많고, 공부도 우등이고, 졸업 때 답사도 하던 혜숙. 문
 학 공부 한다던 혜숙이가 이렇게 매일 성경과 기도와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다니.28)

인용 7에서 졸업한 여학생의 소원인 ‘문학’ 공부, 고상한 아내의 교양으
 로 인식되는 문학, 공부가 우등인 아이의 이상이었던 ‘문학’이란 표상은
 ‘천박’함이나 눈물과 대립되는 고상한 그 무엇이다. ‘천박함’ 혹은 ‘눈물(청
 승)’이 이제까지 여성의 모순된 상황의 상징이라면, 문학은 그것을 덮어
 줄 혹은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이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문학’하기 즉 독서와 창작은 신여성들, 특히 여학생에게 중요한 과

26) 이확순, 「校門을 나서면서—卒業生 感想談」, 『신여성』 2권 4호(24.4), p.36 참
 조.

27) 이춘강, 「아는 이런 안해를 바랍니다」, 『신여성』 2권 5호(24.5).

28) 몽견초, 「(수기) 修女の 설음(OO교회 어린 수녀의 편지)」, 『신여성』 2권 8호
 (24.10).

제였다.

잡지 『신여성』은 이들의 창작적 열정 역시 등한시하지 않았다. 창간호부터 독자에게 개방적이었던, 『신여성』의 경우, 처음에는 논설이나 다른 종류의 글과 함께 문예물을 모집했으나 드디어 4권 6호(26.6)부터는 “독자문예모집”이라는 특화된 광고를 신는다.

讀者文藝募集

年號마다讀者의文藝를左의規定대로募集하오니續續應募하소서

종류: 詩(長短隨意), 論文(一行二十字四十行以內), 書簡文(一行二十字三十行以內), 感想文(一行二十字三十行以內), 小品文(一行二十字三十行以內), 會話室(一行二十字十行以內), 地方通信(4권 6호)

여기에는 비록 〈회화실〉, 〈지방통신〉 등 문학장르가 아닌 분야도 공고되고 있었지만, 주로 문예물 중심의 모집이라는 점은 단지 다른 분야의 하나로 공고되었던 이전의 광고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점차 증대하는 독자들의 문예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자 한 편집진의 의지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다소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었다.

신여성독자문예에는 글의 길고 짧은 것을 꼭 모집광고에 지정한 대로 하여 만뽀뽀가혹 다소 짧거나 길으면 뽀뽀뽀가. 좀알려주십시요.(全州 一投稿生 (“회화실”, 4권 7호)

귀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중에 그 한책에 매월 한 항씩 만 빌려서 매월 작품을 발표해 볼 까하는데 그러케 하려면 귀사와 어찌한 관계를 매져야 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오 (동래 김소순),

시한편을보내드리오니 바더보시고 잘못된 곳을 침삭하서어 기재하여주십시요(중략)일홈만은 숨겨보내오니 량해하시고 만히 곳치여 꼭 기재하여주십시요. (咸永女高 K生)(“여인사론”, 6권 3호)

투고방식에 대한 질문과 투고 후 '첨삭'을 요청하는 모습은 수줍은 '문학소녀'의 전형적인 면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일흔만은 숨겨보내오"는 부끄러움 안에 내재된 글쓰기에의 욕망은 지극히 당돌한 것으로 느껴진다. '매월 작품을 발표'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신여성』에서 독자문단(문예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독자문단>은 4권 1호(26.1), 6권 3호(32.3), <독자문예>란은 4권 8호(26.8), 그리고 그밖에 특집으로 꾸며진 독자란으로 <특집—처녀서정시첩>, 7권 8호(33.8)와 <특집—애독자란—시가 9편>, 6권 2호(32년 2월)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광고 이후에 독자문예란을 마련하지 못함을 사과하는 <편집여언>의 글이나, 독자문예란을 실은 4권 6호에서조차 '모집해서 원고를 받고 보니 수도 적고 수준도 낮았다. 여학교 시험 등의 원인이 있었겠지만 글 쓰는 여성이 없는 것 같아 섭섭하다, 여성이라서 발표하는 데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 같다'는 편집진의 평²⁹⁾은 독자문예란에 대한 호응이 부진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허위의식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의 열정과 그 결과물의 빈약함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

우선 편집진의 말대로 당대 글쓰는 여성이 극소수인 점. 그리고 그들은 발표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점은 우선 일차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견 당연한 듯 보이는 이 빈약한 근거이면에는 '글쓰는 여성이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시 편집진의 태도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우선 신여성 편집진이 독자문예란에 갖는 태도는 같은 개벽사 잡지인 『개벽』과 『어린이』이 독자문예란이 갖는 위상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잡지 『개벽』의 경우 역시 독자문단이 대대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상문예' 제도가 있었고, 혹은 그 제도가 아니라도 잡지에 지면을 얻

29) 「독자문예」, 『신여성』 4권 8호(26.8), p.52 참조.

기만 해도 그것은 곧 작가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작가 이기영이 『개벽』의 현상문에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그밖에 현진건의 처녀작이 『개벽』을 통해 발표되었다는 점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어린이 역시 독자투고는 곧 작가의 길을 의미했다. 독자투고의 단골필자 윤석중, 서덕출과, 이원수, 최순애는 곧 작가로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신여성』의 경우는 단골 투고자인 ‘이선희’가 기자로 발탁되는 예가 있었지만 그녀 역시 문예란 투고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당대 등단한 여성작가들도 『신여성』을 통해서 등단을 하기보다는 『신동아』(모윤숙, 노천명), 『조선문단』(강경애) 등 다른 잡지에 투고했던 점은 『신여성』 독자문예란의 민약한 위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자문예란의 빈약한 위용은 편집진의, 글쓰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었던 문제이다. 그들에게 글쓰는 여성은 ‘문학소녀’ 일뿐 예비 작가인 ‘문학청년’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도 문학에 일생을 바치려합니다. 나는 선생의 창작에서 내가 정진해가라고 하는 목표를 발견했기로 조흔 파이러트가 되어줍시사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일본인소녀는 문학소녀-라기 보다는 차라리 문학광이라고 생각하였다. 막치 영화광이 자기가 잊혀한 리유로 저배우를 존중해도조흔가를 생각하기도전에 덤허노코 그삶에게 심취해버리는것과 일반으로 이러한 소녀는 웬만한 창작만이라도 쓰는 사람이면 무슨 고상한 인격자나 그러치안으면 무슨 신인처럼 숭배하러들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다 원시적 감정인 극히 순진스럽고 그러나 솔직하게 자기의 조와하는바를 고백하는 점에 잇서서 이러한 소녀는 취할점이 업지안흐리라고 생각했다.

.....

‘문학소녀란 무지스러울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다³⁰⁾

30) 이석훈, 「문학소녀」, 『신여성』 7권 5호(33. 5), pp.12~13 참조.

위의 글은 작가지망생인 한 소녀(처녀), 일명 문학소녀가 작가 이석훈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작가가 그 감상을 쓴 글이다. 작가는 '일생을 바치려' 하는 소녀의 열정을 '원시적 감정' 혹은 '귀엽고 사랑스러움'으로 치부해버린다. 물론 그녀가 쓴 작품을 읽어보았는지 여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물론 문학하는 사람이 일등신랑감이었던 풍토³¹⁾로 미루어보았을 때 여성들이 갖는 문학에 대한 환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대목은 이에 따라 형성된 남성작가의 허위의식 역시 마찬가지로였음을 보여 준다. 『신여성』에 실린 백철의 글 역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여학생)이 생활기분의 특징의 하나는 로맨치시즘이라고 할수있다. ...무시기(無邪氣)한 낭만주의자며 세상의 현실을이저버린 행복된 기분주의자다. ...한편으로는 ..그반대의..애수와 비관에 얽어매인 센터멘탈리즘! 이기분도 여학생의 기분의 중요한 면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러한 센터멘탈리즘이 얼마나 만흔 불행한 소녀에게 실망과 자살을 종용하고잇슴일까? ... 여학생 문예란 결국 여학생시대의 모든 생활기분 생활에 대한 낭만적 기분과 센터멘탈리즘!을 반영하고잇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선에서는 저 비속한 「사랑의 불꽃」가튼 것이 여학생의 중요독서물이 된 일이 잇다고하지안는가

우리들은 여학생문예를 서정과 감상주의의 문예라고 전면으로 생각할수잇는것이다

현대의 여학생문예는 지금까지의 센터멘탈한 문예에서한거름나서야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잇혔든 것이다. ...현실에 입각하여 진실을 바라보라...지금의 현실은 그들의 각문학에 좀더 심각하고 엄준한 내용을 요구하고잇다³²⁾

31) 20년대의 일등 신랑감은 문인이었다. '신기미운동이후 한창 신문잡지가 비뒤에 대 슢 순나오듯 하던 시절에는 어디 시 한구, 소설 한편만 발표하여도 그 청년에게는 여자의 편애편지가 사면팔방에서 쏘다져 드러오고....'(일기자, 『여성란 | 신여성 구혼경향—신랑표준도 이러케 변한다, 『별건곤』 1권 2호(926.12), p.47 참조)

32) 백철, 「현대여학생과 문학」, 『신여성』 7권 10호(33.10), pp.35~37 참조.

이처럼 남성작가들이 단호하게 규정한 ‘여학생 문학=로맨치시즘’이라는 등식은 지금까지도 강고한 편견이다. 당대에 센티멘탈리즘은 곧 본격 문학이 갖추어야 될 자질에서는 한참 벗어난 통속적 자질이다. 결국 이들은, 여성의 글은 곧 통속이라는 본격과 통속을 가르는 배제의 논리를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토록 배격한 센티멘탈한 글쓰기 방식은 남성필자들에 의해서 전수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김민숙의 글에서 밝혀진 것처럼 『신여성』에 실린 남성필자들의 글들 역시 그들이 말한 ‘감상성’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³³⁾.

대표적으로 수필이 그러한데, 이 장르는 본격문학의 범주에 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동화와 소설의 경우도 낭만적 사랑을 강조한 신파조의 내용이긴 마찬가지였다³⁴⁾.

여기에는 물론 여성들의 잡지에 신는 글이라는 남성필자들에게 나름의 가치 기준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감상적인 글로 여성들의 글쓰기 방식을 제도해놓고는, 정작 여성들의 글이 ‘감상적’이라는 통속적 범주로 배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선적인 구도가 박약한 것이었음을 밝혀주는 근거가 같

33) 김민숙, 앞의 글, pp.16~17 참조.

34) 독자들에게 반동이 좋았던 「사랑의 왕국으로」, 「久遠의 女像」 등은 모두 『신여성』에 연재된 작품들이다. 조아아의 「사랑의 왕국」은 ‘그림이야기’라는 장르 명칭으로 『신여성』 4권 6호(26.6)~4권 7호(26.7)에 연재된 작품이며, 이태준의 「구원의 여상」은 5권 3호(31.3)~5권 10호(31.11)까지 연재된 소설이다. 신여성의 독자들은 투고를 통해 ‘〈사랑의 왕국으로〉는 재미있시워었습니다. 문예편에 그런 것이 늘어났으면 ...그것이 그만 쫓나게 된 것을 섭섭... 재미있는 문예가 다음호에 나오기를 ...’(‘여인사론’, 『신여성』 6권 3호 중에서), 이라고 하거나, ‘〈久遠의 여상〉은 참말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이 단한편밖에 실너지안어서 늘부족... 신년호부터 한편 쯤 더 있었으면...’(경성 박순자) (‘女人 사론’, 5권 11호)이라고 하면서 문예면에 호응했다.

위의 두 작품은 통속적 연애담이었으며, 대중적 잡지 『신여성』은 이들의 취향에 맞추어 문예면을 편성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은 지면인 『신여성』독자문예란에 실려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한다.

못나고잘나고 하는말들이
내게는지내가 바랍갓흐니
작년에스물세살 올든그제에
무겁은괴억조차 슬어져가네

웃을가?웃을가? 헛튼생각에
넛날에사든그집 차자나볼가?
사라서사는몸엔 생각이크니
즐거운오는째나 그리여보리

잘사리웃고사리 오는그날엔
바드득이를갈고 잘사라보리
집업시떠단이든 그제생각코
바드득이를갈고 잘사라보리!

— 김운포, 「살님」(4권 8호) —

참새들이
개천가 나무우에
웅기종기 모여 안저서
속은거립니다

압마을 김첨지 아들
장가 가고
야학 선생님 잡혀갔나고.

— 박노홍, 「개천가에서」(6권 3호) —

불안쎈 방에서 눈썹세우고
조밥에 목메여 찬물마셨네
아이공 데이공 못살겠구나

고깃내 역하여 얼굴 썩글며
살는물 속개다 손을 데웠네
아이공 데이공 엇더캐하나

감독놈 상판에 매서운눈알
피할 수업서서 실을 뽑았네
아이공 데이공 지옥이로다

공부를 식힌다 아이우에오
피곤한 몸이라 줄고말었네
아이공 데이공 글이나새나

못살아 못살아 나는 못살아
이놈에 공장엔 나는 못살아
아이공 데이공 참말못살아.
(3행 략)

— 김동선, 『제사직공의 노래』(6권 3호) —

『신여성』의 독자문예란에는 다른 잡지의 문예란처럼 주로 시가 실렸다. 30년대 들어, 수필은 바로 기획 기사 혹은 일반 기사로 편입시키는 편집 경향은 수필은 곧 본격 문학 장르가 아니라는 인식, 이미 순수(본격)문학에 대한 엘리트적 인식이 이미 확고해진 상황도 반영된 듯하다. 다른 독자투고에는 개방적이었던 편집진은 문예란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잡지의 독자투고란에 비해 선별된 작품의 수준이 그다지 뒤떨어지지 않았다. 비록 『신여성』의 독자문예란은 양은 빈약했지만, 인용한 시가 보여주는 내용은 ‘센티멘탈’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선별된 시들이지만, 위의 시들이 노래하는 대상은 애상적 사랑 등 감상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건강한 삶에 의 의지, 야학선생의 체포,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등 당대 주요한 사회적 제모순들을 좌파적 시선으로 바라본 것들이다. 그리고 낭만적 영탄으로

침철되지 않고 균제되어 있는 울격 안에서 화자의 긴장된 의지가 내포적 힘을 끌어내고 있다. 또한 다른 작품 중 정석진(4권 8호)의 「희생」은 남성적 권력, 왕에 핍박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왕의 형상을 통해 남성의 오만한 권력을 풍자하고 있어 이야기시의 힘을 제대로 발휘한다. 이러한 성과는 당대 여성들의 문학이, 바로 백철이 여성들에게 '지금까지의センチ멘탈한 문예에서한거름나서', '현실에 입각하여 진실을 바라보라'고 비판한, 그 수준만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만약 독자들의 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³⁵⁾, 잡지 편집진 내부에서 여성들의 글쓰기가 새로운 방식으로 계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실렸던 시기(32년)이후에 기고된 백철의 글(33년)은 그 어조가 너무나 강고했다. 이는 본격문학이라는 테두리 내에는 여성 주체의 문학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남성필자들의 단호한 정치적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태도였다.

결국 남성 중심이었던 『신여성』의 편집진은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견 때문에 「독자문예」를 통해 여성들을 작가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선별된 작품에 선후평 하나 쓰지 않았다. 자신들이 뽑은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편집진의 태도는 곧 여성지는 곧 문인의 등용문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만들었을 것이며 이것이 독자문예란의 축소를 낳았다. 그들에게 여성은 글쓰기로 자신의 존재성을 실현할 수 없는 존재였다.

35) 여기에는 좀 더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여기에 인용된 글들이 주로 계급적인 관점의 글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30년대 전반 『신여성』의 독자들이 선진 노동자나 무산계급문예를 지향하는 문학(소녀)청년들로 확대되었을 경우, 이 글들이 독자들의 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신여성』의 부인기자인 송계월과 박경식이 좌파적 성향의 지식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추측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 『신여성』의 독자투고란의 의미

천정환은 ‘문학을 매개로 채워주고 글쓰는 여성이 예외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인간의 이름과 보편의 한 부분으로 등장했다.’면서 1920.30년대 여성의 독서와 글쓰기를 평가했다.

이는 반은 맞는 말이다. 『신여성』 독자투고란의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인간의 이름과 보편의 한 부분으로 등장’ 인정받기 위해 여성이 받아야 하는 고통의 밀도를 다 전달해주지 못한다.

『신여성』에 실린 여류 문인들에 대한 공개장³⁶⁾들과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에 의하면 당대의 여성문인들은 남성 문인들에게 그다지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김동인의 「김연실전」, 전영택의 「김탄실과 그의 아들」을 비롯해, 남성필자들의 글에 투영된 여성작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의적인 것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당대 여성의 글쓰기는 주체의 욕망과는 달리, ‘인간의 이름과 보편의 한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2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러한 문단내의 권력 구조는 대중적 글쓰기 방식에도 그대로 전수된다. 식민지 시대 최고의 여성잡지 『신여성』의 독자투고란에서 보여주는 여성들의 글쓰기 방식은 이 땅에서 ‘여성적 글쓰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배제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표이다.

『신여성』은 발간 초기부터 여성독자들에게 투고를 유도하는 개방성을 견지하여 이 땅의 여성들에게 글로써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신의 ‘번민’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곧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자각’이라는 성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물론 이전의 잡지에서부터 실행된 것이지만, 『신여성』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독자투고를 유도한 경우는 드물었다.

36) 김기진 외, 「신여성 인물평」, 『신여성』 2권 11호(24.11), pp.53~58 참조.

이를 통해 당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내면과 생활 속 이야기들을 공적 영역을 끌어내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당당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여성도 당당한 사회적 성원임을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이 갖는 매체로서의 한계, 즉 남성필진 중심의 여성지였다는 점은 ‘독자투고란’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독자투고란을 개방하고 독자들의 글쓰기를 유도해내는 과정에는 전적으로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했다. 이들은 여성들의 글쓰기를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영역으로 유도하였고, 감상적인 글쓰기로 취향을 조정해놓고는 배제하였다.

이러한 길들임과 배제의 논리 속에 결과적으로 잡지 『신여성』 안에서 여성들의 글쓰기는 지금까지도 상고한 편견인 ‘감상적’이고 사소한 내용의, ‘여성적 글쓰기’로 구성되었다. 물론 이는 독자투고란의 글들이 주로 미숙한 아마추어의 것이었음을 감안하고 도출된 결론이다. 그러나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은 자신의 일생을 걸고 이러한 편견과 싸웠다. 『신여성』의 여전사, 송계월의 죽음과 박경식의 투병은 『신여성』에 남긴 송씨의 유고 수필³⁷⁾이 말해주는 것처럼 당대에 글쓰기를 매개로 한 여성의 투쟁 기록이다.

그리고 독자투고문 속에서도 드러나는 작은 힘들, 억압적이고 강고한 인식에 균열을 내기도 하는 ‘신평적 글쓰기’와 후기 ‘독자문예란’이 형성한 탈주의 선 등은 당대 여성들이 의도했던 작지만 의미있는 주체적인 글쓰기의 한 양상을 확인하게 한다. 나혜석, 김원주 등 당대 여성 작가들의 의미있는 활동 역시 이러한 성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남성중심의 문단 권력에 대응하는 소중한 몸짓이었으며, 지금까지도 유효한 교훈이다. ‘여성적 글쓰기’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매커니즘 속에 형성된 것이라면, 여성들 스스로가 주체가 된 ‘여성의 글쓰기’는 이

37) 송계월, 「유고. 병상의 편상」, 『신여성』 7권 7호(33.7).

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속에는 성차와 정치적 억압 양면에서 여성들을 포획하는 권력 구조에 대항하는 주체들의 목소리가 살아 있었다.

이는 다른 매체 등 자료의 확대를 통해서도 보강되어야 할 문제의식으로, 좀 더 자세하고 실증적인 분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신여성』, 『개벽』, 『어린이』 『여자계』, 『신여자』, 『부인』, 『청춘』, 『별건곤』

2. 2차 자료

김민숙, 『『신여성』과 ‘독자’—읽는 독자, 쓰는 독자—, 수유 연구실 + 연구공간 ‘너머’ 겨울 강좌 근대매체시리즈 2 《신여성》을 읽는다, 강의안, 2004.1.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 투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학술발표지, 2004.2.6.

이영미, 『일제시대, 트로트와 신민요의 양립』, 『한국대중가요사』, 시공사, 1999.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가리타니 코오진 외, 송태욱 역, 『근대 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cours of feminin writing in the reader's column of New-Woman

Park, Ji-Young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motives and realization method of feminin writing, through looking into the readers'column in *New Woman*(『新女性』)of the women magazine in the 1920s. *New Woman* opened the readers'column and continued to encourage readers writing since the first publication. Women readers of *New Woman* began to express the inner of themselves in writing. However, enlightening editorial police of *New Woman* was reflected with not change in the reader's column, whose editors were, for the most part, male.

The editors infused the idea of feminin writing as the sentimental into their readers and tamed feminin writing as that way, and also misesteemed feminin writing at the same standard. Women readers wrote according for taste of the magazine under editors' guidance. However, several writers of *New Women* refuted logically this prejudiced idea of male editors, which was proved through reasonal and critic essays of the real of women readers. The readers'column in *New Woman* shows that feminin writing in the 1920~30s formed in the adaptation and resistance of the male centric discourse.

key words : "New Woman"(『新女性』), New Woman, feminin writing, the readers'column, enlightening editorial police, the sentimental, tamed, adaptation, resistance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